

비관세장벽 모니터링(일본/도쿄지사)

수입제도 변경사항 / 수출현안 및 동향[2023.07]

1. 한국산 들깨잎에 대한 명령검사 해제

- 일본 후생노동성은 8.14.자로 한국산 들깨잎에 부과하던 잔류농약 파클로부트라졸 (Paclobutrazol)의 명령검사를 해제한다고 발표함
- 대일 수출되는 한국산 들깨잎(간이가공품 포함)은 그동안 일본 수입시마다 파클로부트라졸 성분 검사 후 합격이 되어야 통관이 허가 됨
- 검사 기간(3일) 소요로 인한 선도저하 및 검사비용 부담으로 인해 대일 수출 장애요인이 되어 왔음

2. 잔류농약 명령검사 해제 상세내역

- 품목명 : 한국산 들깨잎(간이 가공품 포함)
- 성분명 : 파클로부트라졸 (Paclobutrazol)
- 명령검사 해제일 : 2023.8.14.
- 해제 사유
 - 명령검사 발동 후 2년간 동일성분에 대한 위반실적이 없을 경우 명령검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에 의거 해제조치됨
 - 한국산 들깨잎 가루 가공품에서 '21.8.11 위반 이후 위반 이력 없음
- 해제후 조치사항
 - 일본 후생노동성은 해당 파클로부트라졸 성분에 대한 수입시 명령검사를 해제 조치함과 동시에 해당성분의 재발방지 감시차원에서 검역소에 의한 모니터링 검사를 30% 강화하여 실시한다고 발표함

<들깨잎 명령검사 이력>

구분	품명	검출성분	기준치 (ppm)	발동년월	비 고
명령검사 (전수검사)	들깨잎	Paclobutrazol	0.01	2020.07.31	3회 위반 ('20.7.14, 0.18ppm/ '20.7.31, 0.05/ '21.8.11, 0.05)

3. 시사점

- 한국산 들깨잎의 경우 향후 동일성분에서 추가 위반이 발생할 경우 즉시 명령검사 발동조치됨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시 됨

※ 자료원 : 후생노동성 수입식품안전대책실

<https://www.mhlw.go.jp/content/11135200/001133756.pdf>

II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

1. 한국산 새싹보리 착즙 분말에서 세균수 초과 위반

- 한국산 대일 수출된 「유기농 새싹보리 착즙 분말」에서 세균수 기준치를 초과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여 주의가 필요시 됨
 - 위반내역 : 성분규격부적격 (세균수 2.4×10^5 /g)
 - 기준치 : 세균수 3,000마리 이하/g당
- 동제품은 물이나 우유 등에 타서 먹는 제품으로 일본의 식품규격기준은 분말 청량음료 제품에 해당되어 엄격한 세균수 기준치가 적용되고 있음

<참고자료> 분말청량음료의 성분규격

- (1) 음용 시 사용되는 배수(倍數)의 물로 용해한 액이 '식품, 첨가물등의 규격기준' 중 '청량음료수의 성분규격' (1) 및 (2)에 적합하여야 한다.
- (2) 비소, 납 및 카드뮴이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. 또한 주석의 함유량은 150.0ppm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.
- (3) 유산균을 가하지 않은 분말청량음료는 대장균군이 음성이고 **세균수가 검체 1g 당 3,000 이하** 이어야 한다.
- (4) 유산균을 가한 분말청량음료는 대장균군이 음성이고 세균수(유산균 제외)가 검체 1g 당 3,000 이하 이어야 한다.

※ 자료원 : 일본 후생노동성 식품규격기준 참고

<https://www.mhlw.go.jp/file/06-Seisakujouhou-11130500-Shokuhinanzentu/0000069965.pdf>

2. 시사점

- 분말청량음료의 경우 세균수 기준치가 대단히 엄격함으로 제조시 공정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, 수출 전 자체 검사를 통해 기준치 초과 여부를 사전에 파악한 후에 수출토록 하는 것이 필요함

III

통관문제사례 관련(대응방안, 사유분석, 경쟁국산 등)

1. 일본국 수입식품 위반사례 주요내용

○ 위반사례 발생 주요 특징

- 일본 후생노동성 수입식품안전대책실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23.7월의 대일수입식품류 위반건수는 모두 70건이 발생함 (식기류 제외)
- 7월의 한국산 식품 위반사례는 유기농 새싹보리 착즙분말에서 세균수 초과로 인한 위생 위반 1건이 발생함
- 각국에서 수입 된 전체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성분부적합의 위반 27건(38.6%), 아플라톡신 위반 11건(15.7%), 위생위반 30건(42.9%), 기타 1건(2.9%)으로 위생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함

2. 주요 경쟁국별 위반 사례

○ 중국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

- 7월의 중국산 수입식품의 위반건수는 14건으로 세계 각 수입국가 중 위반건수가 가장 높았으며, 해외에서 수입되는 전체 수입식품의 위반율 중 20.0%를 차지함
- 신선 양파, 냉동 리치에서 잔류농약 검출 3건, 팬케이크와 생선 레토르트식품, 건조 매실에서 성분 규격 초과 3건 등 성분부적합 위반 6건, 신선시소, 생식용 삶은 계살, 냉동의 단호박 슬라이스와 감자튀김, 풋콩에서 대장균군 검출, 레토르트의 조미 콩류와 레토르트 찹옥수수에서

발육하는 미생물 양성 등 위생 위반 8건으로 계 14건의 위반이 발생함

○ 베트남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

- 냉동의 두리안, 새우 튀김, 팡가시우스에서 세균수 초과 3건, 냉동 삶은 계살에서 장염비브리오 양성, 새우, 냉동 팡가시우스에서 E.coli 양성 4건 등 총 8건의 위생 위반이 발생함

○ 미국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

- 신선 아몬드, 땅콩, 옥수수에서 아플라톡신 위반 9건, 멥쌀에서 곰팡이 등으로 인한 위생 위반 1건 등 계 10건의 위반이 발생함

○ 필리핀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

- 빵류와 케이크류에서 규격 초과 첨가물 사용으로 인한 6건의 성분 부적합 위반이 발생함

○ 태국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

- 오징어 소면에서 대장균 검출 및 멥쌀류에서 곰팡이 발생 3건 등 계 4건의 위생 위반이 발생함

<표1> 대일 수출 국가별 식품 위반건수



※ 표 왼쪽 숫자는 위반건수임

<표2> 국가별 식품 위반 내역 상세

국가명	위반건수	위반율	성분부적합	아플라톡신	위생	기타
중국	14	20.0	6		8	
베트남	12	17.1	3		8	1
미국	10	14.3		9	1	
필리핀	6	8.6	5		1	
인도	5	7.1	4		1	
태국	4	5.7			4	
스페인	3	4.3	2	1		
이탈리아	3	4.3	2		1	
기타	13	18.6	5	1	6	1
합 계	70	100.0	27.0	11.0	30.0	2.0
비율(%)			38.6	15.7	42.9	2.9